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613-621
<https://doi.org/10.29212/mh.2026..140.61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참관기] 6·25전쟁 제76주년 학술세미나 「6·25전쟁기 무명의 영웅들」

김상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전쟁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기 마련이다. 많은 전쟁에는 영웅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전쟁이 역사로 서술되면서 많은 영웅들의 서사가 만들어지고, 재생산된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웅 이야기 뒤에는 늘 잊혀진 인물들도 존재한다. 2026년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 학술대회는 여기에 주목했다. 따라서 그 제목도 “6·25전쟁기 무명의 영웅들”(The Unsung of the Korean War)이었다.

‘무명의 영웅들’이란 영웅이면서도 무명, 즉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영문 표현인 Unsung 역시 주목할만 하다. Unsung은 문자 그대로 노래되지 않은, 불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결

국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무명의 영웅들’은 자기희생적인 행위를 통해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도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영웅들이란 의미가 된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도 76년이 되는 시점, 이제는 기존에 알려지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더 알려져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2. 2026년 6·25전쟁 제76주년 학술세미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 2026년 6월 6·25전쟁 제76주년 학술세미나 「6·25전쟁기 무명의 영웅들」을 개최했다. 김기섭 군사편찬연구소장 대리의 환영사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학술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본 학술세미나에서는 군내·외를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인원이 참가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총 4편의

발표가 이루어졌고, 각각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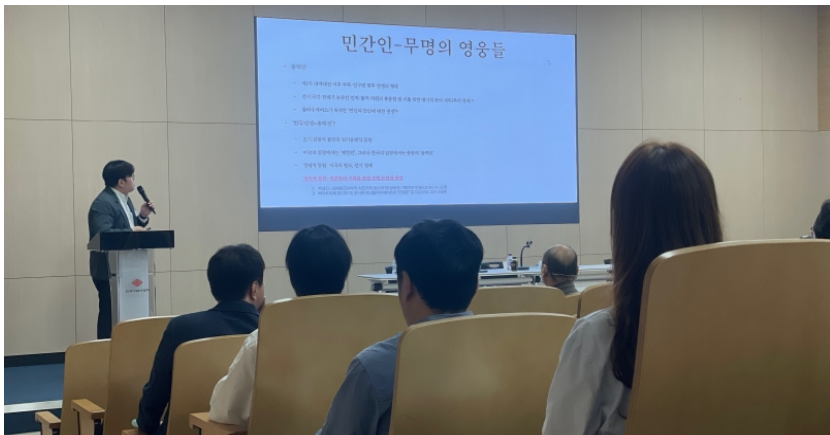
〈표 1〉 2026년 6·25전쟁 제76주년 학술세미나 ‘6·25전쟁기 무명의 영웅들’ 발표 및 토론자

시간	내용	진행자
14:10~14:30	국민의례	사회 : 김상규(군사편찬연구소)
	환영사	김기섭(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소장 대리)
14:30~14:40	기념촬영	
세션	발표자	토론자
사회	허남성(국방대학교 명예교수)	
발표1 14:40~15:20	탈 서사화된 ‘참전영웅’의 재서사화 가능성 모색 - 6·25전쟁 참가 일본인을 중심으로 박용준(한국교원대학교)	박성진(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2 15:20~16:00	6·25전쟁 시기 정훈 좌담회와 후방 민간의 전쟁 동원 논리 김지훈(연세대학교)	서홍석(고려대학교)
16:00~16:20	휴식시간	
발표3 16:20~17:00	6·25전쟁기 미 제8군 한국인 유격대의 창설 배경 이동욱(군사편찬연구소)	김인승(공군사관학교)
발표4 17:00~17:40	육군사관학교와 6·25전쟁 - 전쟁이 만든 전통과 정체성 심호섭(육군사관학교)	김유석(한성대학교)



학술세미나는 국방대학교 허남성 명예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박용준이 맡았다. 6·25전쟁에 참가한 일본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내놓은 자리였다. 박용준은 지난 2023년, 후지와라 가즈키의 『한국전쟁에서 싸운 일본인 : 일급비밀 공개로 드러난 일본인의 한국전쟁 참전의 비밀』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역사에서 밝힌 문제의식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기도 했다. 발표자는 국방부 등의 공간자료, 현행 법령 등을 비교하여, 기존의 참전 서사가 ‘전투부대 파병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이라는 분류에 따라 위계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매체에서도 일본의 대규모 인적 지원이 누락되었고 ‘탈서사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서사화가 ‘참전용사’의 호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토론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박성진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애초에 서사화의 대상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며, 일부 사례의 경우 자발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사화의 주체 역시 일본 정부, 한국 정부의 서사로 나뉘는 상황에서 보훈이란 그 자체가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즉 전선에서 사망한 개인에 대한 기록과 연구는 필요하지만 이들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호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3년 번역서가 나온 후 일본인의 6·25전쟁 참여에 대한 방송을 본 기억이 있어서 더 흥미롭게 들었다. 하지만 일본인의 참전에 대한 보훈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한 논쟁적인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발표는 연세대 김지훈 박사의 「6·25전쟁 시기 정훈 좌담회와 후방 민간의 전쟁 동원 논리」였다. 발표자는 6·25전쟁기 전쟁을 지원한 ‘민간인’ 역시 밝혀지지 않은 영웅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특히 국방부 정훈국의 자료를 통해서 정훈국이 군 내부 뿐만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지에 주목했다. 이에 발표자는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간한 『국방』의 분석을 통해서 6·25전쟁기 전선과 후방의 동원논리를 비교했다. 또한 『국방』잡

지 이외에도 군민 좌담회를 통해서 민간의 의견이 구성되고 서사화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1장에서는 정훈이 군 내부 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까지 담당한 기원을 설명했다. 2장은 본 발표문의 핵심이었는데, 6·25전쟁 이후 정훈국의 좌담회 기획과 민간 참여를 통한 공론장 역할의 가능성 타진이었다. 3장은 이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좌담회의 권위 있는 인사의 발화를 분석하여 민간의 ‘저항’이 봉합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발표자는 후방의 지원논리가 자기 동원의 형식으로 정식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토론은 고려대학교의 서홍석 박사가 맡았다. 토론자는 정훈국의 대민관계대 대한 관계성, 좌담회의 하향식 구조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북한군과의 비교를 제언했다. 발표를 들으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방』 잡지의 입수과정이었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잡지라고 해도 소장기관과 권호가 국내외 기관마다 다르게 산재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결국 역사학은 자료를 통한 증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발표였다.



세 번째 발표는 군사편찬연구소 이동욱 박사의 「6·25 전쟁기 미제8군 한국인 유격대의 창설 배경」이란 발표였다. 발표자는 6·25전쟁기 미 제8군 산하 제8240부대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한국인 유격대의 경우 기존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발표자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해군의 작전경과보고서, 미 제8군의 유격대창설 및 초기 운영에 관여한 인물들의 증언록을 활용하여 역사적 공백을 규명했다고 한다. 발표자는 특히 이북 출신들이 주축이 되었던 유격대의 배경을 2장 북한 공산정권 수립과 반공세력의 태동으로 정리하였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북한 내 저항운동의 결과로 북한 내의 ‘잠재적 반공주의자’들이 유격대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유격대의 조직화는 3장 유엔군 북진과 반공 세력의 조직화에서 분석했다. 발표자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 과정에서 수복지역 내 치안대가 형성되고, 해군의 지원 아래 무장세력화가 되는 과정을 밝혔다. 그리고 제4장 미 제8군의 한국인 유격대 창설 에서는 에이블계획의 과정, 유격대의 창설과 한국 해군의 역할을 각각 다루었다. 본 발표에 대한 토론은 공군사관학교의 김인승 교수가 담당했다. 토론자는 유격대 창설 과정에서 한국 해군의 역할, 특히 서해도서 피난지원, 미8군의 정보공유 등을 지적하면서 보완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미 제8군의 해군에 대한 호응을 핵심적으로 지적했다. 또 미제8군의 맥기 중령의 게릴라전 수행에 대한 관심과 조직화에 대한 적극성을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는 육군사관학교의 심호섭 교수의 「육군사관학교와 6·25전쟁」이란 발표였다. 발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지만, 3장과 4장이 핵심이었다. 6·25전쟁 당시 학생이었던 생도 1기, 2기가 참전한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발표자는 3장에서 생도들의 참전전투를 육군전사 및 인터뷰를 통해서 시기별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단들이 육군사관학교를 재건하는 과정을 밴플리트 장군의 지원, 장소의 선정, 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서 서술하였다. 토론자는 전쟁기념관에서 근무했던 김유석 박사가 맡았다. 김유석 박사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의 사례를 들어 현재의 육군사관학교와 비교를 논의했다. 웨스트포인트의 경우 1820-40년대 정치권 중심으로 폐교론이 제기되었고, 1860년대 남북전쟁을 계기로 논란이 더욱 거세어졌으나, 결국 전문 장교교육의 유지와 민주적 통제, 개혁 병행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 4시간에 걸친 네 편의 발표와 토론으로 6·25전쟁 제76주년 학술대회는 막을 내렸다. 전반적으로 이번 6·25전쟁 제76주년

학술세미나 「6·25전쟁기 무명의 영웅들」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가 다루어진 학술세미나였다. 지정 토론자의 토론 이후에도 많은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적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자리였다.

3. 마치며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번째 발표 이후 특별 코멘트였다. 사회를 맡은 허남성 명예교수는 자신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며 참석자 한 분을 소개했다. 96세의 한국유격군 전우회 총연합회 박충암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이제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던 유격대의 활동 양상이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로 다루어졌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는 소회를 밝혔다. 비단 유격대 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미 많은 ‘잊혀진 영웅’들이 세상을 떠났고 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기억 역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무명의 영웅들’을 더 발굴하고 연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